

신행수첩

수행의 길 남도 3사로 신행연 첫 문화기행

산뜻한 봄날! 우리의 문화속에 깃든 불교의 참뜻을 살피고 살아 있는 정신을 깨우쳐 보고자 불교 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에서는 제1회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25일(토)~26일(일)까지 1박2일에 걸쳐 반도의 최남단 동백꽃이 붉게 물든 해남대둔사와 미황사, 그리고 강진 무위사를 답사한다.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불교문화 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 및 불자들은 2일(화) 오후 1시 남해역 서초구민회관에서 합쳐 출발해 보자. (02)587-6613

꿈의 세계·동화의 나라 불교문화센터 구연동화

아이들의 조질됨은 봄의 아지랑이를 연상시킨다. 어릴때 겪어 노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노란 개나리의 파릇파릇한 생기를 담은 아이들은 이쁜 꿈과 함께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불교문화센터 구연동화교실(강사 박경주)은 그런 꿈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와 풍부한 감정을 맡겨



○대문사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두문산 줄기의 '너무내'라는 곳에 자리해 있다. 봄을 맞아 남도사찰을 찾는 참여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봄빛따라 옛 가람따라 광주교육원 유적 답사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끝,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풀빛 봄내음을 안고 은누리 구석구석 계절의 법음을 전한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승)은 오는 26일 오전 8시 부처님 미소를 따라 '제11차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불교와 도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도전리 마애불상군을 지나면 대가람의 위풍을 드러낸 단속사자를 만난다. 내인사와 대인사에 둘러 석탑 등을 둘러보며 옛 선조들의 불심도 느낄 수 있다.

누구든 자신속의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참가할 수 있다. 출발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정문앞 광장. (062)228-9098

'세상은 쉼' 반야를 찾아 정토포교원 심경 강좌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법회 의식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경이 바로 공(空)사상을 실한 <반야심경>이다. 하지만 가장 친근

한 이 경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이 반야심경을 알기 쉽게 풀이해 창조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를 마련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철저히 터득함으로써 '반야(般若:지혜)'를 얻어, 결국에는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을 통해 반야의 인격을 나타내고, 불생불멸을 통해 반야의 실상을 현명하고 부처님과 보살을 통해 반야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불교교육원장 범문스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정토포교원에서 3월 22일~5월31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시, 오후 7시30분~9시30분 서초정토법당에서 3월21일~5월9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02)737-0853

용성스님 가르침 기려

구한말 선·교·율(禪敎律)에 정통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으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민정신 계도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이를 꼽으려면 우선 용성스님을 들 수 있다.

3·1독립운동대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이었던 용성스님은 14세

대각사서 열반56주 추모... 설법집 봉정 법공양

에 출가, 선(禪) 수행과 교학(敎學)을 남김없이 섭렵하고 선교경수(禪敎兼修)의 길을 주창했다. 오는 24일 용성스님 열반 55주기를 맞아 대각사(주지 도문)는 용성스님의 유업과 뜻을 기리며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용성대종사 55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용성스님의 설법을 집대성한 <불타조사인류 불교5대수행합본>(대각 제178호)와 <선수한안경 장아함선생경 합본>(대각 제178호)이 영정에 봉정되며 이날 참석한 불자들에게 무료 보급된다.

용성스님이 작곡한 범행이 불교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지는 속에 독립운동과 불교중흥을 위해 육신을 회양한 용성스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765-0972



○용성스님

올바로 배우는 불법 불교교화원 교양대 개설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향상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의 장이 신설돼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년 5백여회 이상의 각종 법회 및 연례대회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적극 펼치고 있는 (사)한국불교교화원은 부설로 불교교양대학(학장 성룡)을 개설한다.

4월 1일 개강될 불교교양대학은 초심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기초교리에서부터 비교종교학, 아함경 등의 정통교리를 종합정리하는 프로그래밍을 마련하고 3개월과정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불자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뜻있는 교육불사를 위한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964-8044

월간 '맑고 향기...' 3월 창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본부장 윤정광)는 최근 소책자 '맑고 향기롭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3월호로 첫호

를 선보인 이 소책자에는 산골오두막에서 보내는 범정스님의 수필을 비롯해 꽃이야기, 책이야기, 동화, 알뜰생활 메모 등이 실려있다. 또 회원들의 편지글, 운동본부 소식, 지역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산·경남모임을 소개했다. 한 일그림의 지원으로 매월 30쪽 분량, 1만부를 제작하는 '맑고 향기롭게' 소책자는 부산·경남·충주 춘천 등 지역모임 회원과 전국 주요 불교서점에도 진열돼 무료로 배포된다.

이제진씨 사회로 진행될 이번 음악회는 국악가 김영동씨의 우리가락 '소금연주'를 필두로, 노영심씨가 '피아노 연주'로 맑음의 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가수 김광석씨가 노래의 향연을 펼치며 자매결연을 맺은 이웃들이 한자리에 만나게 된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는 법정

스님이 '연꽃처럼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묘한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042)633-1141

절망의 삶에 희망과 자비를... 남편병사 두자녀 불구에 자신도 눈멀어

경남하동 조막순씨

가난에 쫓겨 병환 한번 가보지 못하고 눈까지 멀어 끝내 몸져 누운채 도움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 경남 하동군 진교리 진교리 302번지 중령3구에 살고 있는 조막순씨.

남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 투병중이 세상을 떠났고, 용석과 진옥 두 남매는 자라면서 근육이완 마비 증세로 모두 지적장애자가 되었다.

용석과 진옥은 아직 한번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열제 후유증이 아기가 추우면 할 뿐이다. 남매가 된 두 자녀와 눈이 먼 조막순씨는 세상을 열아줄 애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심장병으로 생사를 헤매던 일태현군(본지 15호)은 각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0591)751-3384

농협 803-01-344384(김기원)

새봄 이웃과 나누는 사랑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27일 대전서 음악회

회는 대전모임 결성 및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부산, 서울에 이

어 세번째로 열리는 대전 음악회는 충청지역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

스님이 '연꽃처럼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묘한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042)633-1141



○이계진씨



○김영동씨



○김광석씨



○노영심씨

작은 냇물이 모이고 또 모이면 넓은 바다를 이루어 낸다.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생명이 움트는 새봄을 맞아 '법정스님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오는 27일 오후 7시 대전 우송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

생활속의 불교 ㉑

협찬: (주)삼민산업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끝을수록 '내가' 없어진다. '없다'는 데 대한 불안·공포는 커진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된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공포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 권력은 잡고 보는 것, 자리는 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유에 집착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그렇다. 그것을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깨우쳐야 하는 '나', '나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아니면 적어도 대법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사에 걸림이 적고 한결 자유스러워 보인다는 점이다.

집착은 구속이다. 애착은 사슬이다. '나', '나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존재와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퐁퐁 갇힌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팔아서 대신 '나의 모습, 나의 명예·권위·재산' 따위를 사들이고 있는 셈이다.



지혜란 '본래부터 나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란 물질과 육식은 필경 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일체의 형상계에선 고정되게 내세울 존재가 없다. 고로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셨다. 누구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걸림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하는냐는 반문이다. 살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고,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부를 잃으면 괴로운 것이 삶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이 설하신 참도리는 아니다. 아니, 부처님께서서는 그것은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라고 하셨다.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불자라면 먼저 그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보라. 자만심, 애착, 소유욕으로 꽂 찬 마음을 비워보라. 그리고 대신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보라.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텅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원시림 파괴

부처님께서 알라미마에 계실 때에 수행승들이 집을 새로 수리하면서, 한 수행승이 나무를 벌목했다. 이 때에 나무에 사는 수신(樹神)이 "우리의 터전을 벌목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그 수행승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수신의 아들의 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그래서 그 수신은 "이 스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으나 곧 부처님께 부처님을 찾아 빌기로 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듣고 수행승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을 수신에게 칭찬한 뒤에 "석가의 아들이 나무를 벌목하거나 벌목시킨다면 사문 석가의 아들은 한 목숨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비언이 있었음을 알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대중들에게 확인한 뒤에 "초목을

신속한 신문, 잡지, 책, 보다 값싼 쇠고기, 햄버거를 위해 소수의 다국적 기업은 매개로 가난한 나라의 귀중한 열대림을 마구 벌채해 왔다.

지금 전세계에는 1989년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 전지구의 16%가 원시림이었으나 이제 고작 6%로 전락하여 72%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훨씬 좁아진 허파의 지구를 사는 우리도 옛날보다 더욱 작은 허파, 좁은 가슴을 지니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당 축구장 크기의 원시림이 채벌되고 있어 그 속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지구상의 모든 원시림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원시림의 파괴는 지구상에 예측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자연의 보복을 초래하고 있다. 열대 원시림은 어마어마한 수분과 연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초당 축구장 만한 산림 사리져 생물멸종·지구온난화등 기상이변 초래



○삼림벌채로 인한 원시림의 파괴는 생태계의 변화와 토양의 사막화 같은 공기의 감소 등 자연의 보복을 받게 한다.

한다"라는 계율을 제정했다. 이 계율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법이 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처님의 선견지명의 혜안을 드러내는 탁월한 환경윤리이다. 여기서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나무의 개성은 수신(樹神)으로 등장한다. 수신이 나무를 자른 수행승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파괴된 원시림의 수신들은 지구를 배회하면서 "인류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면 어떨까"라고 궁리하고 있다.

초목은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초목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적도부근의 원시림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산업화이후 보다 나은 집, 보다 좋은 가구, 보다

지구상의 기후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 기후의 이상현상인 엘니뇨현상도 이런 열대림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원시림이 파괴되면 대량의 수분이 유출되어 땅은 황폐화되고 강수량은 감소하고 지하수원은 내려가서 농산물의 생산량도 격감되고 토양은 사막화된다.

또한 원시림이 불태워지면 대량의 탄화물이 산소를 소모하고 많은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녹색식물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공기조성의 변화를 가속화시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빙산은 용해되고 바다수면을 상승시켜 경작지 면적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열대림의 파괴는 최근 20~30년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3백만내지 1천만 종류의 생물이 멸종에 50만내지 60만종의 포유류, 새, 곤충 및 식물의 아름다운 기적을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외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리엔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 1. 내·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 2.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 3. 실내의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방습용 베파베리아 · 건축용 베파베리아 · 축사용 베파베리아
· 단열용 베파베리아 · 방수용 포장재 · 레저용 MAT

삼민산업주식회사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100호
· 전화: 0345-498-5533
· 팩스: 0345-498-8998